

금융그룹 감독 관련 법적·제도적 고려사항

2015. 11. 25.

김 · 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홍민영

CONTENTS

- I. **현행 법령 체계 내에서 금융그룹 감독의
 실행가능성**
- II. **금융그룹 감독의 예상 내용**
- III. **규제 형식 및 법률적 · 제도적 고려사항**
- IV. **제언**

I. 현행 법령 체계 내에서 금융그룹 감독의 실현가능성

현행 법령상 현황

개별 금융회사 관련 근거 법령상 건전성 규제 및 영업행위 규제 개괄

근거 법령	내용	비고
은행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은행의 자기자본 및 유동성 규제(제34조),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제한(제35조의2),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제35조의4), 다른 회사 등에 대한 출자제한(제37조) 등 규정• 재무제표 등 일정한 자료의 제출 및 경영공시 의무 부과(제42조 내지 제43조의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정한 건전성 규제, 영업행위 규제 이루어지고 있음• 규제의 대상은 <u>개별 은행</u>이 원칙이나, 은행법에 따라 자회사 소유 시 자회사와의 관계에 대한 규제 포함
보험업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회사와의 금지행위(제116조) 및 자회사에 관한 보고의무(제117조) 규정•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제한(제109조),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제111조), 재무건전성 유지(제123조) 등 규정• 공시의무(제124조 - 보험계약 관련 내용) 및 보고의무(제13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정한 건전성 규제, 영업행위 규제 이루어지고 있음• 규제의 대상은 <u>개별 보험회사</u>가 원칙이나, 보험업법에 따라 자회사 소유 시 자회사와의 관계에 대한 규제 포함

현행 법령상 현황

개별 금융회사 관련 근거 법령상 건전성 규제 및 영업행위 규제 개괄

근거 법령	내용	비고
자본시장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투자업자의 재무건전성 유지(제30조) 및 경영건전성 기준 준수(제31조), 대주주와의 거래제한(제34조),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제35조) 등 규정 제4편 영업행위 규칙에 따른 금융투자 업종별 영업행위 규제 일정한 공시 및 보고의무 부과(제3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정한 건전성 규제, 영업행위 규제 이루어지고 있음 규제의 대상은 <u>개별 금융투자업자</u>
저축은행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주주 발행 주식 취득의 제한(제12조의2),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제12조의3), 일정한 금지행위(제18조의2), 경영건전성 기준 준수(제22조의2) 등 규정 일정한 보고 및 자료제출 의무 부과 및 경영공시 의무(제22조의 4 내지 5, 제23조의2)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정한 건전성 규제, 영업행위 규제 이루어지고 있음 규제의 대상은 <u>개별 저축은행</u>
여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제50조),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등(제50조의2), 건전경영의 지도(제53조의3) 등 규정 자료제출 및 보고의무(제50조의8, 제54조) 및 경영공시의무(제54조의2)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정한 건전성 규제, 영업행위 규제 이루어지고 있음 규제의 대상은 <u>개별 여신전문금융업자</u>

• 대주주에는 그 특수관계인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연결감독 시행 중

현행 법령상 현황

규제 대상을 일정한 “그룹”으로 정한 개별 법령

금융 지주회사법	금융지주그룹에 대한 그룹 단위의 규제 근거
공정거래법	기업집단그룹에 대한 그룹 단위의 규제 근거 (그룹 소속회사에 대한 규제) 단, 규제 목적 및 취지가 경제력 집중 방지 및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라는 점에서 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성 제고 및 금융그룹 내 부실의 전이와 위험의 집중을 방지하려는 금융그룹 규제와 상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회계처리 관점에서 지배·종속 관계를 판단하여 규율

- 다만, 감독 목적에서 “그룹” 자체에 특정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단행 법률은 없음

현행 법률 체계 내에서 금융그룹 감독의 실현가능성

- 금융지주회사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그룹에 대한 그룹 차원의 통합 규제 근거 공백
 - 개별 금융회사에 대한 근거법령에 기초한 규제에 그치고 있음
 - 개별 금융회사에 대한 근거법령상 일부 대주주와 해당 금융회사의 관계 또는 해당 금융회사와 자회사의 관계를 규제 대상으로 하는 조항도 있으나, 금융그룹 자체를 규제 단위로 하는 근거 조항은 찾을 수 없음
- 특히, 기업집단그룹의 경우 주로 공정거래법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으나, 규제의 초점이 주로 경제력 집중 방지 및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에 맞추어져 있어 금융그룹에 대한 규제목적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님
 -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를 제외하고 건전성 측면에서 비금융 소속회사의 위험이 금융회사로 전이되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수단은 없음

➡ 금융그룹 감독을 위해서는 새로운 감독시스템 도입 필요

II. 금융그룹 감독의 예상 내용

감독 대상 금융그룹 범위의 확정

The definition of financial conglomerate used by the Joint Forum is “**any group of companies** under **common control** whose **exclusive or predominant activities** consist of providing **significant services** in at least **two different financial sectors** (banking, securities, insurance)”

Joint Forum (2001). P5

규제 대상으로서의 “그룹” (1)

“그룹”의 정의

금융그룹감독의 출발점

누구를 규제 대상으로 할 것인가 → 규제의 필요성이 있는 그룹은 어디인가?

- 자본의 중복계상, 위험의 전이 · 집중 방지, 규제차익의 최소화 목적
- 단일 회사/기업 단위가 아닌 회사/기업의 집단(즉 그룹)을 대상으로 할 수 밖에 없음
- 그룹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의 문제

새로운 개념 도입 VS 관련 법령상 기존 개념 활용

“지배”의 개념을 정의한 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계열회사의 개념정의에 사실상 지배개념 도입
금융지주회사법	계열회사 + 최다출자자 (지주회사에 관한 공정거래법 규정도 동일)
외감법	지배·종속 관계: 공정거래법상 사실상 지배개념보다 협소한 것으로 평가

감독 대상 금융그룹 범위의 확정

규제 대상으로서의 “그룹” (2)

공정거래법상
“지배”의
개념 활용 고려

- 새로운 개념의 도입 및 이로 인한 혼란 가능성 고려할 때 기존 법령상 개념 활용이 바람직
- 금융그룹 감독 규제의 취지를 고려하고자 하면 지배의 개념을 가장 포괄적으로 정한 공정거래법을 우선적으로 고려가능

→ 공정거래법상 지배 개념은 지분율 기준 또는 지배력 기준에 의해 판단 

-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은 개별 업법을 통한 감독의 사각지대 방지 목적이 있고,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 논의는 비규제 계열회사(즉 비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금융그룹의 정의의 측면에서는 포괄적 접근으로서 공정거래법상 지배 개념 활용을 고려해 볼 수 있음

지분율 기준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 관련자¹와 합하여 당해 회사 발행 주식(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의 30% 이상을 소유하고² **최다 출자자인** 회사를 의미함(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지배력 기준

- ① 동일인이 다른 주요 주주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대표이사 또는 임원의 50%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회사,**
- ②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당해 회사의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의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
- ③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동일인을 포함)와 당해 회사 간에 **인사교류³**가 있는 회사,
- ④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동일인 또는 동일인 관련자와 **자금·자산·상품·용역 등의 거래를 하거나 채무보증**을 하거나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
- ⑤ 기타 당해 회사가 동일인의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서 인정될 수 있는 영업상의 표시행위를 하는 등 **사회 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당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임을 요건으로 함(시행령 제3조 제2호)



1. '동일인의 관련자'라 함은 ① 동일인의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② 동일인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 관련자와 합하여 총출연금의 30% 이상을 출연한 **최다 출자자인** 경우나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 중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 ③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 관련자를 통하여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용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④ 동일인이 이 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회사, ⑤ 동일인 및 동일인과 ②~④ 관계에 해당하는 자의 사용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및 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인을 의미)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함(시행령 제3조 제1호 후단)
2.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의 기준은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함(법 제7조의2)
3.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동일인을 포함)와 당해 회사 간에 임원의 겸임이 있거나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직원이 당해 회사의 임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

감독 대상 금융그룹 범위의 확정

“금융”그룹

- 금융 및 보험업을 포함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 개념 활용
-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최소한 2 이상 포함한 기업집단일 것
 - 금융그룹에 대한 연결감독을 목적으로 하므로 복수의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소속된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함
- 기업집단 내에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서로 다른 금융업을 영위해야 함
 - 서로 다른 규제수준이 적용되는 이종의 금융회사 사이의 위험 전이 차단 등을 목적으로 하므로 이종 금융회사가 속한 금융그룹이어야 함
- 금융그룹 설정에 있어서 감독당국에 대한 재량부여 여부

감독 대상 금융그룹 범위의 확정

규모 기준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개념을 “그룹”으로서 정의하고, 동일 기업집단 내에 서로 다른 종류의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존재하는 기업집단을 “금융그룹”으로서 정의하는 경우, 규제의 필요성 및 규제 실익을 고려하여 일정 규모요건을 충족하는 금융그룹만을 우선 적용대상으로 할 필요 존재
 - 모든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 존재
 -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⁴)을 출발점으로 고려 가능: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도 변화된 경제현실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존재
 - 해외 사례: EU의 경우 ① 금융부문 자산이 그룹 전체 자산의 40% 초과할 것 및 ② 금융부문 내 최소 규모 금융업권의 자산규모가 60억유로(약 7조원) 초과할 것이라는 기준 적용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출발점으로 하는 경우, 금융그룹에 금융전업그룹을 포섭시킬 수 있는 별도 규정 필요
 - ① 금융업 또는 보험업만을 영위하는 기업집단, ②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동일인인 경우의 기업집단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배제(공정거래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단서)
 - 금융지주그룹, 기업은행 등 은행전업그룹 등에 대한 별도 포섭 필요성

4. 동일 기업집단 소속 국내 회사들의 직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의 자산 총액(금융·보험회사는 자본금 또는 자본 총액 중 큰 금액)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시행령 제17조 제1항)

감독 대상 금융그룹 범위의 확정

▶ 결국 다음 그룹 형태 중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 그룹을 우선 감독대상으로서 고려 가능

금융 지주회사 그룹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 등
금융기관 모회사 그룹	금융전업그룹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이종의 금융회사로 기업집단을 이루고 있는 그룹)
기업집단 그룹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중 금융업 규모 요건을 충족하는 그룹

- 규모 요건을 어느 수준에서 도입할 것인지에 신중한 접근 필요:
실질적으로 금융그룹 감독의 범위에 포섭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가늠자로서 역할 예상

감독의 내용



건전성 규제

- 자본적정성 유지
- 그룹 전체의 적격자본이 그룹 전체의 필요자본 이상일 것

위험관리체제 구축

- 관리 대상 내부거래 유형의 확정
 - 예 그룹 내 신용공여, 상호출자, 불량자산거래, 불공정거래 등
- 관리 대상 내부거래의 통제
 - 일정 기준 마련 및 보고, 감시를 통해
- 위험관리에 적합한 지배구조 정책과 절차 확립 유도

지배구조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2016년 8월 1일 시행 예정)

III. 규제 형식 및 법률적·제도적 고려사항

해외 사례



유럽의 경우

- 2002년 12월 각 회원국에 법제화된 “EU 복합금융그룹지침(Financial Conglomerate Directive)”에 근거하여 금융그룹에 대한 규제 시행
- 2005년 각 회원국은 자국 내 법제화
- 2012년 리먼사태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 기존 감독원칙 대폭 수정하여 새로운 금융그룹 감독원칙 권고

일본의 경우

- 2005년 6월 이후 “복합금융그룹 감독지침”에 의하여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감독 시행 중

모범규준

건전성 규제 선진화 방안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15년 10월 29일)

금융그룹 감독은 현행 법규에 따른 개별 금융회사 중심 감독*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됨을 감안하여

- 우선 「모범규준」을 통해
자율적인 그룹 통합감독
추진



- 모범규준 시행 후
운영성과 등을 고려하여
법제화 추진

* 금융그룹 중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만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통합감독 시행중

모범규준

모범규준

관계 당국이 제시한 관련 사안의 업무처리에서 준수하여야 할 일응의 기준 내지 가이드라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통상 행정규칙에 해당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

VS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

‘법규명령’이란 행정기관이 형식적 법률의 수권에 근거하여 또는 법률의 집행을 위하여 제정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율을 의미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대법원규칙, 감사원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등이 이에 속함

‘행정규칙’이란 행정조직 내부에서 상급기관이 그의 소속기관에게 행정의 조직과 활동을 보다 자세히 규율할 목적으로 그의 권한 내에서 발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율을 의미

대부분의 훈령, 지시, 예규, 고시 등이 이에 속함

법령상 위임이 없는 이상 법률적 구속력에 한계가 있으나, 새로운 감독시스템의 도입 및 자율적 감독체계 확립을 위한 출발점으로서 의미

모범규준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1. 5. 31. 선고 2010나34519, 34526(반소)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53683 판결

“모범규준은 금융감독원 등의 금융당국이 금융기관을 지도, 감독하기 위하여 마련한 지침에 불과하고, (중략) 위 모범규준의 제정 이유는 금융기관이 기업의 거래 목적·재무상황·금융 거래 경험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파생상품이 기업에 적합한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게 하자는 데 있는 것으로 이해하여야지 손실이전거래라고 하여 무조건 위법한 것으로 평가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

파생상품 업무처리 모범규준에서 기존 파생상품 거래의 손실을 신규 거래의 가격에 반영하는 거래(“손실이전거래”)를 불건전 거래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인의 모범규준이 금지하는 거래인 손실이전거래는 무효라는 주장을 배척

모범규준을 통한 규제 의 장점



신속하고 유연한 대처 가능

- 새로운 감독시스템
- 폭넓은 여론 수렴 및 일종의 숙려기간으로 기능
- 감독대상의 입장 및 거래계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가능

법제화 추진의 전단계로서 모범규준 시행 및 이를 통한 시행착오의 최소화는 바람직

- 시장에 대한 충격 완화
- 시행착오의 최소화

모범규준에 따른 자율적 감독 유도

- 금융그룹 스스로 위험관리체계 등을 구축하여 자율적 시행이 가능하도록 유도

예시 -----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모범규준의 한계



법규성에 있어서 한계 존재

- 다만, 감독대상이 모범규준을 통해 도입된 감독시스템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것은 가능

모범규준의 내용이 각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으로 반영되는 경우 해당 내부통제기준 위반을 이유로 제재하는 것은 곤란

- 법규성에 대한 한계 우회 및 그룹단위 감독이라는 본래 취지에 반함

모범규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개별법령상 포괄적 감독권에 근거한 감독권 행사 가능성

- 개별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 법령과 다른 취지인 그룹 감독을 위해 시행되는 모범규준을 그 감독권의 근거로 하는 것은 행정 재량권의 일탈 내지 남용 논란 우려

모범규준을 통한 감독운용을 위한 과제



자율규제를 통한 모델제시

- 법규성의 한계를 부정할 수는 없으나 그룹감독에 대한 모델을 제시
- 향후 법제화시 예측가능성 부여

운용의 묘를 살리기 위한 금융감독당국과 감독대상의 협조 및 지속적 communication 필요

- 금융그룹 감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 중복규제로 인식되지 않도록 상호간에 협조 및 의사소통 필요

모범규준을 통한 감독내용의 구체화를 위한 노력 필요

- 감독목표에 적합한 감독수단이 되어야 함
- 감독대상이 준수하기 원하는 모델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

대표회사의 선정 - 권한과 책임

그룹의 대표회사를 지정하고, 대표회사에게 금융그룹 감독을 위한 일정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며 대표회사 혹은 그 이사회의 지시를 각 소속회사 혹은 그 이사회가 따르도록 하는 방안

필요성

- 대표회사 주도의 통일적 위험관리체계 구축 및 실행
 - 대표회사에 대한 감독 책임 부과를 통한 금융그룹 내 규제 준수 확보 → 금융그룹 규제 내지 감독이라는 본래 취지에 부합
 - 금융그룹 감독체계에 대한 자율적 협조취지에 부합 및 감독실효성 확보를 위한 현실적 제약도 고려
-
-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 경영관리 업무 및 이에 부수하는 업무 수행 가능
 - 금융기관 모회사그룹의 경우에도 대표회사와 소속회사 사이에 모자회사 관계(특히, 완전 자회사인 경우 등)에 있는 경우 이러한 대표회사를 통한 규제 실효성 확보가 실질적으로 가능

대표회사 선정 방법

금융회사: 감독의 실효성 고려

참고

공정거래법상 대표회사의 개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항: “기업집단 대표회사”라 함은 공시대상회사 중 소속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대표로 해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공시사항을 취합·공시하고, 개별회사가 작성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 작성할 책임이 있는 회사를 말한다.

대표회사는 자율적 감독 내지 규제의 취지를 고려하여,

금융지주회사 그룹의 경우 금융지주회사를

금융모자회사 그룹의 경우 최상위 모회사를

기업집단의 경우 해당 기업집단에 속한 금융회사 중에서 다른 계열 금융회사에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를

금융그룹에서 자율적 선정
후 금융감독당국과 협의

대표회사 관련 고려사항



- **기업집단 그룹의 경우 수직적 지배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존재**
 - 이 경우 금융그룹 감독을 위한 일정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할 대표회사 선정 기준 정립 자체가 어렵고, 대표회사 선정 이후에도 금융그룹 내 규제 준수 감독을 위한 지배력을 인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 **특히 계열회사가 상장법인이거나 다수의 소수주주가 존재하는 경우 그러한 소수주주와의 이해상충 가능성 때문에 대표회사의 지시 내지 요청이 법률적으로 실현 가능할지 의문 존재**
- **모범규준의 틀 내에서 대표회사의 권한 및 책임에 대한 기준설정 필요**
 - 금융그룹 소속회사간 조정자 및 금융감독당국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창구로서의 역할

대표회사의 권한 관련 고려 가능한 대안(1)



- 대표회사와 각 소속회사 사이의 금융그룹 감독 준수를 위한 권리 의무를 계약법적으로 구현하는 방안
 - 이 경우 규제 위반에 대한 책임 부과 대상은 원칙적으로 대표회사로 하되, 대표회사는 각 소속회사에 대하여 계약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임
- 다만, 이러한 계약 자체가 소속회사의 이사회 승인 대상이며,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시 그룹 전체의 이익과 개별 소속회사 이익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이 난점
 - 해당 계약의 내용, 그 구체화의 정도에 따라 각 계열회사 이사회 승인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고, 향후 계약내용의 해석에 대한 분쟁가능성도 상존

대표회사의 권한 관련 고려 가능한 대안(2)



- 가칭 그룹위험관리협의회를 구성하여, 해당 협의회로 하여금 그룹감독에 관한 주요 내용을 의사결정 하도록 하고, 해당 그룹에 속한 계열회사로 하여금 해당 협의회의 결의를 준수하도록 하는 방안
 - 100% 모자회사 사이거나 금융지주회사 그룹이라면 현실적으로 고려 가능(현행 금융지주회사법도 완전자회사에 대한 특례 인정)
 - 그렇지 않은 기업집단의 경우 협의회 구성 및 구속력 부여에 대한 고민 필요



결국은 대표회사의 권한과 이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명문화 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

보고 및 공시의무 부여가능성

- 정보공개(보고 내지 공시)는 감독시스템 구축을 위한 필요수단

- 다만, 정보공개의 내용 및 범위에 대해서는 모범규준이라는 틀 및 감독대상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추가 검토 필요

- 대표회사를 통해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

- Comply or Explain
- 모범규준의 법규성 관련 한계 존재 및 다른 법령과의 균형 고려 필요 (단,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의 선례 존재)

- 금융감독당국에 대한 보고로 갈음하는 방안

- 모범규준의 법규성 한계에 대한 고려에서 관련 내용을 공시가 아니라 감독당국에 보고
- 감독당국은 보고내용의 비밀을 유지하되 개선을 위한 권고자료로 활용

보고 및 공시의무 관련 고려사항

- **현행 법령상 이미 각종 공시제도 존재**

- 자본시장법상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한 유통공시/기타공시 및 그 위임을 받은 거래소 규정에 따른 각종 공시 제도
-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대한 기업집단현황 공시/대규모 내부거래 공시/기타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제도

- **금융그룹 감독을 위한 공시 필요 사항 중 일부는 이미 다른 법령에 따른 공시 대상이나, 그룹감독 목적에서는 별도의 공시 내지 보고 필요성은 존재**

- 금융그룹 자체의 위험관리체제 구축에 관한 공시의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공시 대상과 온전히 중복된다고 보기 어려움
- 기업집단그룹의 범위 획정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과 달리하는 경우 그 자체로 공시의무 부과 의의가 있을 것
- 금융기관 모회사그룹 집단의 경우에도 그룹 전체 관련 공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측면에서 유의미

IV. 제언

모범기준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운용의 묘를 살릴 필요

1 금융그룹 감독의 필요성에 대한 전반적 인식 확대 필요

- 금융그룹 감독을 중복규제 등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감독당국의 노력 필요
- 모범기준을 통한 바람직한 모델 제시, 일종의 숙려기간으로 활용하여 향후 법제화시 시행착오를 최소화
- 이 과정에서 감독 대상 금융그룹의 제언 및 입장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할 필요 존재

2 대표회사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고민 필요

- 금융그룹 감독을 위해서는 대표회사의 일정한 역할수행이 불가피
- 대표회사에게 기대하는 역할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자율적 협조 유도
- 대표회사와 소속회사 간 모범기준 이행수단 확보를 위한 협의 필요

법제화 필요



- 법제화의 전 단계로서 모범규준을 통한 규제 시도 및 업계의 의견 수렴 필요
 - 강력한 금산분리(공정거래법, 은행법, 금산법) 정책을 취하고 있는 현실에서 기업집단의 신규 규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득작업 요청됨
 - 그룹에 대한 감독 vs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개별 법인(회사)의 조화
- 모범규준 시행 경과를 토대로 규제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여 법제화하는 것이 바람직

감사합니다

홍민영

| myhong@kimchang.com

| 02-3703-1630